

경제개혁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Economic Reform in Korea

전강수

- I. 경제개혁의 필요성
- II. 경제개혁의 방향
- III. 한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
- IV. 맺음말

Abstract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Korean economy is that the ideology of material prosperity has been extended during the period of rapid growth since 1960s and is now dominating almost the whole society.

Thus in pursuing the economic reform, we should abandon that ideology, and need to create a new framework of the economy which is based on the idea of stewardship. Although Christians are responsible for these, many Korean Christians do not take it upon themselves to do so. Hence prior to the economic reform for the nation, the churches must be reformed first.

Perhaps the church reform which the people of God spontaneously perform will follow such an order as follows. They should first of all perceive that the excessive pursuit of material prosperity is an idolatry, and then repent that they have worshiped such an idol, and finally recover 'Koinonia' within the churches.

The economic reform that follows this church reform should involve not only removing many kinds of economic injustices, but also abolishing the economic structure that has supported the ideology of material prosperity. In the light of these requirements, the measures taken by Korean government for the economic reform are unsatisfactory. Particularly, recent economic policies are laying excessive stress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which I think is generating a new form of material prosperity ideology.

I. 경제개혁의 필요성

지난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리하여 19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한국은 일본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고, 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의 대표적 존재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경제는 선진국 단계로의 진입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¹⁾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상이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첫째, 그 동안의 고도성장을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하고,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 교회 내에 침투되어 경제성장을 같은 시기의 교회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적 증거로 받아들이는 낙관론을 낳았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개혁은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리며 그것이 없어도 한국 경제와 교회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다. 한국 교회 내에 팽배해 있는 왜곡된 형태의 '한국 = 제2의 이스라엘'론은 아마 이러한 견해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둘째,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기본적으로 저임금-저숙가 정책에 의해 농민과 노동자를 희생하여 달성한 것으로 보고, '성장 =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전'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고도성장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²⁾ 그것이 노동자와 농민을 희생하여 달성한 것이므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개혁은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린다. 오직 자본주의의 틀을 깨뜨리는 혁명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견해와 앞의 견해가 정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개혁무용론에 귀착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셋째, 고도성장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순과 문제점

1) 中村哲, “東아시아 資本主義와 韓國 經濟”, 『韓國 經濟 發展에 대한 歷史的 認識』(經濟史學會 創立 30周年 紀念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1993)을 참조하라.

2) 이른바 '주사파', 즉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한국 경제의 성장이 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에 주목하는 견해이다. 한국 경제는 그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의 확대, 부정부패의 만연, 질곡화한 정부규제, 경제력의 집중, 부문간의 불균형³⁾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개혁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 견해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이미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 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첫번째 견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전자보다는 후자를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동안 두번째 견해에 빠지지 않으면서 첫번째 견해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작업은 그 동안 두번째 견해(및 주체사상)를 가진 소위 '운동권'이 전담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번영에 따르는 위험을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작업은 운동권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 수 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 (사 2:6-8)

나는 지금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탐욕과 뇌물수수, 토지투기, 사업상의 거짓 (2항목 생략)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선포한다."⁴⁾

이 글은 세번째 견해의 입장에 서 있다. 이와같이 "개혁론"의 입장에 선다고 할 때, 우선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문제점의 영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는 개혁론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위의 첫번째, 두번째 견해로 인한 문제점을 능가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만들어 낸 역사적 요인으로서, 식민지 경

3)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편,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비봉출판사, 1992); 정운찬, "UR 이후의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 제22권 2호(1994)를 참조하라.

4) "하나님께서 예수원에 주신 예언 말씀", <월보 기독교대학> 101호 6항목 가운데 4항목이 경제적 불의에 속하는 것임에 유의하라.

힘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한 경제개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 내에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⁵⁾를 낳은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하의 극심한 빈곤은 우리 사회에 물질적 번영을 향한 강한 욕구를 낳았고, 1930년대 이후 식민지 공업화의 경험은 작지만 물질적 번영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다고 생각된다.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적 정부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이러한 욕구와 믿음을 기초로 성장 지상주의적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고도성장이라는 성과와 함께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가 형성·파급되었다. 어느덧 우리 사회 내에는 국가든 개인이든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경향이 만연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해 사회 전체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즉 물질적 번영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경배와 복종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하우즈바르트는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한 바 있다.

… 경제성장의 유지가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최우선 목표를 먼저 정하고 나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노동의 비인간화, 환경의 파괴, 그리고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번영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었다는 명백한 표시이다.⁶⁾

둘째, 고도성장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개입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사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 중 선진국 진입이 운위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여기서 잠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에 관해 가장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안병직 교수에 따르면 값싸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후발성의 이익, 권위주의적 정부의 경제개발

5) 하우즈바르트(Bob Goudzwaard)는 이데올로기를 광적인 목표달성주의, 또는 목표에 집착하는 망상이라고 정의한다. 즉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지나쳐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게 될 때, 그러한 목표 추구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경우, 목표는 우상이 되고, 그 목표의 추구는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우상 이데올로기」(Bob Goudzwaard, 김재영 역, IVP, 1987)를 참조하라.

6) 같은 책, p. 113.

정책 등이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주요한 요인들이었다고 한다.⁷⁾ 그러나 이 요인들이 그 자체로서 성장촉진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제3세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요인들이다. 문제는 왜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에서는 상호 결합하여 성장촉진적 방향으로 작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성장에 필요한 그밖의 여러 요인들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⁸⁾ 한국 경제의 성장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경제학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개입되어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같은 기간에 한국 교회의 급속한 신장이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⁹⁾

그렇다면 이 특별한 뜻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국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물질적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다섯 달란트’(마 25:15)를 맡기신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축복이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눅 12:42)로서 힘써 ‘다섯 달란트’를 남겨야 할 책임과 소명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받은 달란트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에 힘씀으로써, 보다 많은 것이 맡겨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마 25:21)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축복인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 12:48).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둔 채 이러한 소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7) 안병직, “한국경제의 현상과 과제”, 『가나안복민운동』 2(1990).

8) 부족한 부존 자원, 좁은 국토, 남북분단 등을 생각해 보라.

9) Sang-Goog Cho, “Korean Economy: A Model Case of a Miraculous Growth”, Max Stackhouse et al., *On Moral Business*(Wm. B. Eerdmans Publishing Co.).

중점이 한국 사회 내의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경제개혁론을 살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개혁에 관한 논의에서는 경제개혁을 물질적 변형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개혁 자체가 물질적 변형의 이데올로기에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경제개혁에 대한 개념의 정의들¹⁰⁾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생각된다.

- ① 변화하는 국제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적용하고 인적 자원의 능력이나 발상을 변화시키는 것
-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 ②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경제를 발전 도약시키기 위해 기존의 제도나 형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경제의 체질을 강화 내지 변화시키는 것
- 이영근 (경제기획원 경제조사과장)
- ③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
- 이병균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부회장)

그런데 물질적 변형의 이데올로기가 우상 숭배이며, 경제개혁은 바로 그것을 척결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들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개혁을 앞장 서서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교회가 경제개혁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교회가 물질적 변형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것을 사회에 파급시키는 역기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현실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경제개혁에 앞서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 “국제화시대 경제개혁의 방향(좌담)”, 『경제정의』 1994년 봄호

II. 경제개혁의 방향

현재 필자에게 바람직한 경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경제개혁의 원칙과 기본 방향이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교회개혁과 경제개혁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피스(Brian Griffiths)는 교회개혁이 경제개혁의 핵심이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경제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타락한 세상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¹¹⁾ 결국 그는 교회개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개혁에는 기대를 걸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헤이(Donald A. Hay)는 그리피스가 기독교적 가치의 회복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교회가 그러한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세속적 시장경제의 가치들이 교회, 특히 복음주의적 교회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피스와는 달리 교회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¹²⁾ 그리고 그는 성경으로부터 사회적 윤리의 원칙들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게서 이 원칙들은 세속 사회에 실현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차선의 해결책에 대한 기준으로서 늘 기억되고 주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다.

교회개혁이 경제개혁의 핵심이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피스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교회개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개혁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윤리의 원칙들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개혁과는 별도로 제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헤이의 입장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교회개혁에 대한 헤이의 비판적 견해에는 반대한다. 결국 우리는 교회개혁을 강조하는 그리피스의 입장과 경제개혁을 강조하는 헤이의 입장

11) Brian Griffiths, *The Creation of Wealth*(IVP, 1984), pp. 60-63.

12) Donald A. Hay, *Economics Today*(Apollos, 1989), p. 173.

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교회개혁을 기초로 한 경제개혁의 적극적 추진,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각 경제개혁과 교회개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판적 견해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1. 교회의 개혁

한국 교회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한국의 양대 기적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조상국 교수는 한국 경제와 한국 교회의 성장 전략이 외부지향적, 공업지향적, 성장지향적인 공통성을 갖는다는 점을 밝히고, 양자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¹³⁾ 한국 경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고도성장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놓여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것을 깨닫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지적한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가 교회 내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흔히 지적되는 물질주의, 기복주의, 개교회 성장지상주의 등이 교회 내에 나타난 이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다. 물론 이것은 세상 세력의 영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오히려 교회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간 문민정부의 개혁은 청와대를 주체로 하고, 구 정권의 실력자나 제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회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사실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의 개혁은 그 자체로서 사회를 개혁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므로, 이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개혁되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 교회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배출해 온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에 젖은 지도자들을 다수 양성하여 배출해 왔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중대한 비리 사건에 늘 그리스도인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종종 이러한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교회가 사회의 타락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사회개혁이나 경제개혁에 앞서 교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 번 발견할 수

13) Sang-Goog Cho, 앞의 논문.

있다. 그러나 현재 교회개혁이 진행될 조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끊임없이 개혁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하나님에 의한 개혁의 반복에 대한 기록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에 직접 성전을 정화하셨다(요 2:14-16; 눅 19:45-46).

역사서의 내용이 '타락 = 우상 숭배, 개혁 = 우상 타파'로 나타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스도인은 우상과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호와와 율페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좇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시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왕하 17:15)

...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사 2:6)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겔 5:6)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것들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와 무관할 것으로 보는 것은 비성경적임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다고 하는 대표적 우상이 아세라 목상, 바알 신(풍요·번영의 우상)이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자 그대로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맘몬(Mammon) 숭배를 경계(마 6:24)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표적 우상 = 맘몬, 우상 숭배의 대표적 형태 =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예보적 해석을 요구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 전 6:10)라든지, 탐심이 곧 우상 숭배(골 3:5, 엡 5:5)라고 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날 문자 그대로의 우상을 섬기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로 보기 전에, 먼저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교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책임있는 청지기직의 수행과 가난한 자를 도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선포하시며, 나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를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코이노니아)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다. 행 2:44에서¹⁴⁾ 알 수 있듯, 코이노니아(Koinonia)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종종 많은 회생을 요구하는 나눔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통 '교제'로 통용되는 무미건조한 '함께함'(togetherness)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¹⁵⁾ 초대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의 실행은 "그 중에 꺾절한 사람이 없게"(행 4:34) 만들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시기, 어느 곳에서도 해결한 적이 없었던 경제문제인 빈곤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늘날 교회가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물량주의, 기복주의, 성장지상주의는 개교회 내의 코이노니아와 개교회 간의 코이노니아를 잊어버린 결과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 계명의 외면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심각한 경제적 악행으로 연결된다. ① 구제 기능의 상실(렘 16:49), ② 부동산투기(미 2:2; 사 5:8), ③ 경제적 착취(미 3:2; 암 2:6-8; 8:4-6; 사 3:14, 15; 약 5:4), ④ 사치(암 6:4-6; 사 3:16; 약 5:5), ⑤ 사업상의 거짓(암 8:5) 등은 이와 같은 범죄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개인 또는 개교회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자신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실 듯하다.

1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15) C. J. H. Wright, 정옥배 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IVP, 1989), p. 118.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니라(렘 7:8-11)

‘교회개혁 = 우상 파괴 = 코이노니아 회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통해 행하시는 개혁이다. 겔 9:6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의 이방인과 다름없이 우상을 좇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만일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들부터 징제하심으로써 정결케 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 경우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뿐이며, 교회는 징제와 개혁의 대상일 따름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개혁이다. 이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백성이 동시에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먼저 깨달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같은 개혁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물질적 번영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깨닫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기독교 세계관이나 성경적 경제 윤리에 관한 교육은 이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지식인, 특히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교회 내에서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둘째, 그 동안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 내의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코이노니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코이노니아가 단순한 나눔의 영역을 넘어 회생의 영역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2 경제의 개혁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교회개혁의 원칙을 생각할 때,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은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와 결별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웁츠바르트의 용어로는 ‘자족의 경

제, 배려의 경제' 16)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우리 사회 내에 각종 경제적 불의(부동산 투기, 경제적 착취, 정경유착, 사치 등)를 낳았고, 더욱이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구조(정부에의 과도한 권력 집중,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약자를 희생한 경제개발 정책 등)를 정착시켰다. 그러므로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경제적 불의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경제구조를 폐지하고 '자족의 경제, 배려의 경제'와 같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단,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데는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낡은 틀을 개폐하는 것은 그것이 지탱해 온 경제의 일시적 교란을 수반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의 증가 또는 생산량의 감소, 나아가 기득권층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¹⁷⁾

그러면 경제개혁을 통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첫째, 정운찬 교수와 이근식 교수는 세속 경제학의 용어를 사용하여 각각 '자유경쟁질서의 확립', '국민들의 윤리와 자발성, 창의력이 발휘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확립' 18)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현대의 주류 경제학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간주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답은 자칫 문제의 근원이 물질적 번영의 승배에 있음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우즈바르트는 '자족의 경제, 배려의 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하고, 충분히 노동집약적이면서도 인류 사회와 인간의 책임 한계에 걸맞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며, 환경 파괴에 대해 엄격한 제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단, 그것은 소득·소비 수준의 저하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¹⁹⁾ 우리는 이러한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셋째, 헤이는 성경의 청지기직(stewardship) 개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윤리의

16) Bob Goudzwaard, 앞의 책, p. 115.

17) 정운찬, 앞의 논문, p. 103.

18) 이근식,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경제정의』 1994년 봄호, p. 69.

19) Bob Goudzwaard, 앞의 책, pp. 112-113.

원칙들을 도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경제의 새로운 틀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성경적 사회 윤리의 원칙, 경제의 새로운 틀, 정책 대안의 사례라는 3항목으로 나누어 헤이의 견해를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헤이는 성경적 사회 윤리의 원칙으로서 다음의 8가지를 제시한다.²⁰⁾ ①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피조 자원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낭비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사람은 자원과 재능의 청지기직을 수행할 소명을 갖고 있다. ③ 청지기직은 자원의 처분을 결정할 책임을 포함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청지기직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인간은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 일은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자신의 일에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일은 인간이 청지기로서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⑦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기본적 욕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함께 나눌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욕구는 일차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⑧ 청지기직은 모든 생산물을 소비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부자는 일로써,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의무를 갖는다.

다음으로, 그는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하는 경제의 새로운 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① 책임있는 청지기직의 수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 질서의 보호라는 개념이 경제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③ 사회 구성원들에게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사회 구성원 중 일부가 빈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경제체제 내에 구비되어야 한다. ⑤ 부의 추구 외에 다른 목표나 가치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⑥ 정부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틀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²²⁾ ① 기업의 소유권과 책임을 부분적으로라도 노동자에게 이전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법적·재정적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²³⁾ ②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해 실업을 해소시키는 것,²⁴⁾ ③ 법률과 정부의

20) Hay, 앞의 책, pp. 72-77.

21) 같은 책, p. 124.

22) 같은 책, pp. 173-175.

23)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헤이는 다음의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주식소유자의 소유권을

간섭을 통해 노동조합, 금융기관, 기업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자본시장, 노동시장, 재화시장에서의 경제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 ④ 전통적인 조세·이전지출의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기본적 필수품을 획득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²⁵⁾ 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헤이의 견해 또한 아직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한국 경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경제개혁의 비전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의 현상과 현재의 정책을 재평가하고, 한국 경제의 목표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경제개혁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것을 추진할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하고 있고 또 그것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로부터의 경제개혁’ 주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전국민의 25%에 달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래로부터의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능력과 의사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경제개혁에 앞서 교회개혁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상황은,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은 경제개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케 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많은 숫자나 세상에서의 영향력에 의존해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 백성의 회개와 기도, 그리고 행동(선지자적 외침,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생활)이 이에 뒤따른다면, 이와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개혁은 추진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지적은 흥미할 만하다.

부정하여 채권소유자와 동일하게 만들거나 혹은 무한책임의 조건 하에서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②장기근속자에게 주식 참가(equity participation)를 허용하는 것, ③기업의 법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용기회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는 것, ④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노동자 참가(worker participation)를 허용하는 것 등.

24)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헤이는 직업보장제도(job guarantee system)를 들고 있다.

25) 시민들이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분권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하찮은 걸음걸이가 이스라엘의 운명적인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기적이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 은밀히 행하시는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행동을 에스더의 행동과 연결시키셨으며, 에스더는 이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험 속에 던져 넣었다. ... 행동하시는 분(the Doer)인 하나님께서, 숨어서 기다렸던 것이 바로 그 행동이었던 것이다. ... 마치 수세기 전에 에스더의 행동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처신도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군대의 기동(起動)을 요청하는 외침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지 누가 아는가?²⁶⁾

III. 한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그 동안 문민정부에 의해 추진된 경제개혁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해 보기로 하자.

첫째, 개혁에 대한 비전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부분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경제정책의 기초는 처음에는 경기부양, 그 다음에는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혁, UR 타결을 즈음해서는 대외경쟁력 강화로 우왕좌왕해 왔다. 이것은 경제개혁에 대한 비전의 취약성, 정부내 개혁팀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둘째, 그 동안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에 의해 경제적 불의의 제거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 온 경제구조의 개편이라는 목표는 거의 외면해 왔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정부가 그러한 경제구조를 거꾸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셋째, 최근 정부는 '국제화·개방화 = 대외경쟁력 강화'를 역설하기 시작함으로써,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와 결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걷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외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대한 집착이 전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제화·개방화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를

26) Bob Goudzwaard, 앞의 책, pp. 106-107.

압박하고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이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의 감수도 불가피한 것처럼 주장되고²⁷⁾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이미 국제화·개방화론은 대외 경쟁력 지상주의가 되어 버렸고, 따라서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논의를 보면 대외경쟁력 강화 그 자체가 지상 목표이므로 다른 어떤 희생의 감수도 불가피한 것인양 주장되고 있다...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의 목표이고, 이를 위한 경제적인 토대를 발전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의 목표이다. 대외 경쟁력의 강화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실현되는 부수적인 결과의 하나이다. 이를 절대적인 목표로 추구하면, 잘못된 정책수단을 택하게 돼 효과도 없으면서 환경보호나 인권보호와 같이 대외경쟁력 못지 않게 귀중한 목표를 희생하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게 된다.²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제개혁론도 대외경쟁력 강화론의 영향하에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영적 투쟁이 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은 스스로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매진하든지, 아니면 물질적 번영을 구가하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잔을 받든지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에 의한 긴장, 유례없는 장기간의 무더위와 가뭄, 각종 부정부패와 사고 및 범죄의 연발 등 우리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자기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

IV. 맺음말

지난 60년대 이래의 고도성장은 한국 사회에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27) 예컨대 UR 협상시의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생각해 보라.

28) 이근식, 앞의 논문, p. 51.

형성시켰다. 물질적 번영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의 경쟁과 복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도성장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한국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키신 것은 한국 민족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신 과정이었다. 한국 민족은 받은 ‘다섯 달란트’로 힘써서 ‘다섯 달란트’를 남겨야 할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은 이와 같은 소명의 수행을 방해하는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척결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서 해 나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회마저 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것을 사회에 파급시키는 역기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먼저 교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제개혁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코이노니아는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시려는 그분의 배려이다. 오늘날 교회가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교회개혁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개혁과,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개혁, 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징계를 통한 개혁이 두렵다면, 우리는 물질적 번영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그 동안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나아가 교회내의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교회개혁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할 경제개혁은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와 결별하고, 청지기직의 정신에 기초한 ‘자족의 경제, 배려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와 결별하는 일은 우리 사회내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불의를 제거하는 것과 함께, 이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경제구조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개혁이 청지기직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현해 가야 할 경제의 새로운 틀은 ① 책임있는 청지기직의 수행이 허용되어야 하고, ② 자연 질서의 보호라는 개념이 경제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③ 사회 구성원들에게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④ 사회 구성원 중 일부가 빈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경제체제 내에 구비되어야 하고, ⑤ 부의 추구 외에 다른 목표나 가치들이 존중되어야 하며, ⑥ 정부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특징을 갖춘 것이라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는 그 동안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부분적 규제 완화 등의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 온 경제구조를 폐지하는 개혁으로서는 극히 미흡하며, 그나마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오지도 않았다. 특히 최근 정부는 <국제화·개방화 = 대외 경쟁력 강화>를 역설하면서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와 결별하기는 커녕, 대외 경쟁력 지상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은 이 새로운 형태의 우상에 대한 영적 투쟁이 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깨달은 백성의 회개와 기도, 그리고 행동을 기다리고 계신다.



■ 전강수 ■

1959년에 태어나 서울대 및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전공.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사 전공. 일본 文部省 국비외국인 유학생으로 明治大學에서 1년 간 연구. 현 대구효성카톨릭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 최근 기독교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여러 기독교 경제학자들과 기독교술교육연구소에서 강연 중.